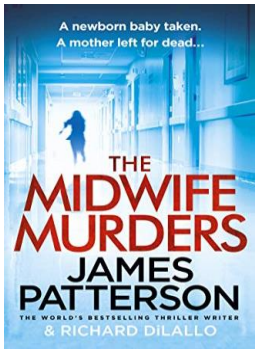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MIDWIFE MURDERS

가제 : 산부인과 병동 살인 사건 - 지하 입양 네크워크의 상상초월 범죄

저자 : James Patterson

출판사: Cornerstone Digital

발행일: 2020년 8월 6일

분량 : 339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스릴러 소설의 본좌, 제임스 패터슨의 신작!**

*** "제임스 패터슨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꿰뚫고 있다." - 「뉴욕 타임즈」**

*** "제임스 패터슨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움직이듯이 스릴러를 쓴다." - AP 통신**

조산사인 루시 류안에게 임신과 출산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직업이자 일상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맨해튼의 한 대학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신생이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자 루시의 일상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그 와중에 근거 없는 수상한 소문마저 돌며,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어둡고 비밀스런 세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루시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스릴러 제왕 제임스 패터슨의 명성이 여전함을 증명하는 소설이다.

루시는 전문의와 같은 실력을 갖춘 베테랑 조산사이자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아들 윌리를 챙기던 중 동료 트레이시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쌍둥이를 임신한 '발레리나'는 여성이 출산에 임박한 상태인데 약물 중독 상태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 신생아가 실종되어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루시는 삼엄함 분위기 속에서 발레리나의 상황부터 해결하기 위해 분만실로 달려갔다. 분만실에는 루시의 조수들과 세 명의 레지던트가 있었는데 그 중 백인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루시는 우여곡절 끝에 발레리나의 쌍둥이들을 모두 무사히 분만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몇 분 후 루시가 다시 병실에 갔을 때 그 곳에는 트레이시도 없었고 무엇보다 산모 발레리나까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사르카르 박사를 통해 발레리나가 사회복지사들의 조언에 따라 약물 중독 치료 센터로 옮겨졌다는 것과 그녀의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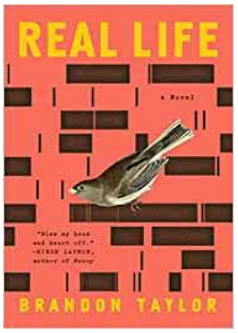
아이는 방금 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집에 돌아온 루시는 병원에서 또 다른 아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일찍 병원으로 출근한다. 아직 열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카트라 코박의 출산을 위해 병실로 달려갔지만, 무슨 일인지 그 병실은 텅 비어있었다. 당황한 루시는 마침 현장을 찾아온 형사 레온을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린다. 그리고 레온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병원 지하 창고를 뒤지던 중 버려진 MRI 기계 안에 배가 갈라져 피 범벅이 된 채 죽어 있는 카트라를 발견한다. 누군가가 아기만 데려간 것이었다.

얼마 후 루시는 유명 모델인 그레타의 출산을 맡게 되었고 이 일은 병원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곧 그레타와 그녀의 아기마저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루시는 동료 트로이와 함께 병원 CCTV 비디오를 관찰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병원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된 카트라의 아버지 패트릭을 통해 어쩌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아기들과 엄마들을 이 병원에서 납치하거나 살해한 것 같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카트라는 원래 베이비시터였는데 자신이 돌보고 있던 아이들의 아버지와 불미스러운 일로 임신하게 되면서 해고되었는데, 어느 날 러시아식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아기를 자기들에게 팔면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카트라와 가족은 고민 끝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 아기를 넘기기로 하고, 그들은 카트라의 임신 기간 동안 그녀를 성심성의껏 보살핀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바뀐 카트라는 그들에게 아기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한다. 결국 카트라는 병원에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루시는 레온 형사에게 이 일에 대해 알리고, 레온과 함께 러시아 마피아 조직 및 지하 입양 네트워크에 대해서 파헤치게 된다. 과연 아이들과 엄마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 '조산사'라는 독특한 직업 세계와 아기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벌어지는 암흑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패터슨 (James Patterson)의 『Alex Cross』, 『Women's Murder Club』, 『Detective Michael Bennett』, 『Private novels』를 비롯한 전작들은 전세계적으로 3억 8,5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제목 : REAL LIFE
가제 : 우리는 친구일까? – '우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의 잔인성
저자 : Brandon Taylo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대학원 생활의 외로움, 욕망,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강력한 소설, 절대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작가의 놀라운 작품." – 록산 게이**
*** "이 책은 내 머리와 마음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책은 소설의 미래이며, 저자 브랜든 테일러는 바로 그 미래의 이름이다." – 『Heavy』의 저자, 키스 레이먼**
*** "한 남자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벌어지는 긴장감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 『Before You Suffocate Your Own Fool Self』의 저자, 다니엘 에반스**

윌리스는 미드웨스턴 대학이 있는 한 대학 도시에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과 싸우며 생화학 학위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알라바마 출신의 이 내향적인 젊은 흑인 청년은 성소수자였으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은 채,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는 그에게 결코 낭만적이거나 안전한 대피소가 될 수 없었다. 대학 도시가 가진 폐쇄성은 오히려 학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동맹과 권력 역학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점점 주변 백인 친구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이 대학 도시에 웅크리고 있던 오랜 적대감과 욕망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종 문제에 더해 개인의 상처, 차별, 엘리트주의, 대학 생활,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 교류에 관해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큰 줄거리보다는 불안과 초조, 거북함, 슬픔 등 소설 내내 들끓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주인공의 독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설로, 현재 여러 미국 주요 매체들이 올해의 책으로 손 꼽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데뷔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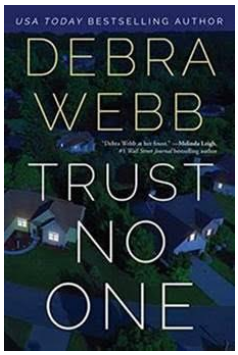
소설은 먼저 대학원생들의 한 열띤 주말을 시간 순으로 비추며 진행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윌리스의 이야기가 있다. 윌리스는 동성애자이며 흑인이고 완전히 쇠약해져버린 신체만큼이나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피폐해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중서부 도시에는 흑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고 윌리스는 학과에서 유일한 흑인 학생으로 언제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금요일 저녁 윌리스는 친구들 만나기 위해 호숫가로 갔다. 얼마 전 윌리스는 동생으로부터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태껏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은 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아주 오랜만에 외출해 친구인 잉브, 밀러, 콜, 빈센트를 만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친구들 역시 대부분 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불분명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전부 백인이었고 특권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다. 친구들은 언제나 웰리스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은근하며 미묘한 방법으로 웰리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웰리스가 공감할 수 없는 금융이나 투자 문제, 수영장이 있는 저택에서 보낸 휴가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안에서 최초로 대학을 간 웰리스가 고등학교 시절 배웠을 리 없는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럴 때마다 웰리스는 그저 친구들을 따라 최대한 열심히 웃었다. 얼마 후 이 친구들 중 유일한 이성애자인 잉브는 술에 취해 웰리스에게 시비를 걸었고 웰리스는 그 자리를 빠져 나와 호수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때 웰리스와 같은 건물 연구실을 쓰고 있는 친구 엠마가 약혼자 톰과 산책을 나왔다가 그를 발견했고 웰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웰리스는 아버지의 죽음을 비롯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고 엠마는 진심으로 웰리스를 위로했다. 엠마는 심지어 아직 호숫가에 앉아 아무 것도 모른 채 웃으며 떠들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웰리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톰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엠마는 웰리스의 입술에 위로의 뜻으로 입맞춤을 했고 화가 난 톰이 당장 달려와 웰리스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톰은 흑인인 그가 늘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웰리스와 엠마 모두 엠마가 먼저 입을 맞춘 것이며 그저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위로였다고 하자 그제서야 톰은 진정했다.

웰리스는 사실 자신이 백인 친구들과는 다른 위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던 그는 탈출구로써 공부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깨어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다른 학생들보다 두 배 더 일하고 두 배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다른 이들은 언제나 그가 그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흑인이기 때문에 받은 배려로, 이 연구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은근히 짐작하곤 했다. 그는 친구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늘 우정이란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잔인함을 통제하는 도구하고 생각하곤 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웰리스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개인이 과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랜든 테일러 (Brandon Taylor) 는 Electric Literature의 수석 편집자이며 Literary Hub의 객원 작가이다. 그의 저술은 Lambda Literary Foundation, Kimbilio Fiction 및 Tin House Summer Writer's Workshop에서 펠로우십을 받았다. 그는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과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았으며, 아이오와 작가 워크샵에서 예술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목 : TRUST NO ONE

가제 : 아 무 도 믿 지 말 것

– 비극적인 가족사를 둘러싼 10일 간의 숨막히는 수사극

저자 : Debra Webb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8월 1일

분량 : 42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아마존 킨들, 스릴러 분야 1위**

*** "모든 단서들이 신선한 충격을 준다!" – 커커스 리뷰**

*** "비밀, 배신 그리고 치밀한 캐릭터로 가득한 범죄 스릴러"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앨리스 브래넌**

두 사람이 살해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케리 데블린 형사는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케리는 전 남편과, 질풍 노도의 시기에서 발악 중인 십대 딸과 격렬히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 직장에서는 무능한 새로운 파트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와중에 살인 사건과 더불어 한 임산부가 실종되는 사건까지 일어난다. 케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앨러바마주의 버밍엄이 온갖 비밀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마저 어딘가 의심스럽다. 케리는 과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신작 소설로, 열흘 간 벌어지는 끈질긴 추격전을 다룬 박진감 넘치는 스릴러이다.

케리가 동료 팔코 형사와 이 사건에 착수한 지 열흘 째 되는 날인 6월 16일 토요일 오전, 케리는 자신의 딸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위협하는 한 남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다. 케리는 곧 팔코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또 다른 사건 현장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니 빨리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전화였다.

열흘 전, 벤자민 애벗과 그의 장모가 고급 맨션에서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임신 상태였던 벤의 아내 셀라는 현재 실종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케리는 현장으로 출동했다. 벤자민은 버밍엄 출신이지만 서른 살이 되기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둔 억만장자로, 이 곳 앨러바마에주 버밍엄에서 집안 대대로 식품 산업을 해온 지역 유지이자 세력가인 다니엘 애벗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온 지 1년 정도 되었다.

케리는 마흔이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데다 꽤 호남형인 그의 이마 정중앙의 총상과 몸을 관찰했다. 그의 몸에는 아무런 격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떨어진 방향으로 보아 그의 침대에 묻어 있던 혈흔은 아마도 아내 셀라의 것일 거라 추측했다. 또한 그는 침대에서 자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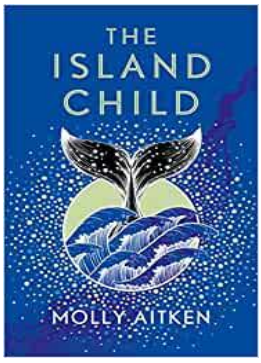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그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가진 범인이 이 침실로 들어와 그를 한 번에 죽여버린 것 같았다. 케리는 침실 한 켠에 놓인 벤자민과 그의 아내 셀라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따르면 벤자민은 1년 반 전에 스물 여덟 살의 젊고 아름다운 셀라를 만나 만난 지 몇 주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감쪽 같이 사라진 지금 케리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얼마 후 케리는 벤자민의 침대에서 발견된 그 혈흔이 셀라의 것이 아니라 위층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혹시 셀라가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기 위해 일부러 어머니의 혈흔을 그 곳에 남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케리는 최근 셀라와 벤자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과 셀라가 언제든 벤자민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자동차까지 사두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셀라를 의심하며 벤의 부모를 찾아갔다. 하지만 벤의 부모들은 셀라가 갑작스럽게 임신한 것을 부담스러워 한 벤자민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잠시 사소한 갈등이 있긴 했지만 곧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대화를 통해 풀었고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케리는 셀라에게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15년 전 셀라의 언니 자넬이 자신의 고용주인 미 상원의원 T. R. 톰슨과 함께 이 곳 버밍엄으로 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 로스쿨에까지 진학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오래도록 자신의 지도 교수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알아낸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그토록 언니의 사건에 매달렸던 그녀가 원래 꿈대로 경찰이나 사법 기관이 아닌 일반 상업 로펌에 들어갔고, 그 후 자산가 애벗과 결혼해 언니가 실종된 앨러바마에 왔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켈리는 이어 벤자민의 아버지 다니엘이 T. R. 톰슨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다는 사실과 언니의 동료 직원이 언니가 톰슨의 아들 테오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 그리고 얼마 후 그 동료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켈리는 또한 어쩌면 자넬이 셀라의 어머니와 T.R. 혹은 다니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얽히고 설킨 한 비극적인 가족사와 수사극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데브라 웹 (Debra Webb)는 150 개가 넘는 소설의 USA Today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Romantic Times Career Achievement Award와 Reviewers' Choice Awards를 수상했으며, 2012년에는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L.A. Banks Warrior Woman Award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100번째 소설을 출간한 기념으로 Centennial Award를 수상했으며, 그녀의 책은 4백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제목 : The Island Child

가제 : 이니스 아일랜드

- 너무나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와 가족에게, 다시

저자 : Molly Aitken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소설" - 「아이리시 타임즈」**

***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 페이 웰던**

*** "절묘하게 쓰인 산문으로 표현된, 연민을 자아내는 힘과 유머, 긍정성으로 가득찬 책. 우나는 매혹적인 내레이터이며 모든 장마다 생생히 살아있는 인물이다." - 나단 필러**

20년 전, 우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평생을 보낸 이니스 섬을 떠났다. 이니스 섬에는 오직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낚시 배와 양모뿐이었고 유일한 책은 성경책뿐이었다. 소녀들은 이 곳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 언제나 집에만 머물러야 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섬은 선물 그 자체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나가 소녀의 티를 조금씩 벗고 있을 때 즈음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우나는 과연 이 섬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페르세포네의 신화(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사이에서 난 딸로, 꽃밭을 거닐다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하계로 끌려갔다. 어머니 데메테르의 강력한 요구로 페르세포네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하데스가 건넨 석류를 먹는 바람에 하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1년 중 3분의 2는 지상에 머물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계에서 하데스의 아내로 지내게 된다)에 뿌리를 둔, 정체성과 모성, 자유와 운명, 이야기가 가진 치유력에 관한 놀라운 데뷔작이다.

훗날 우나의 어머니가 들려준 바에 따르면 우나는 보라색 구름과 파란색 구름이 어우러져 하늘을 가득 덮고, 날카로운 이빨 같은 파도가 요란하게 아우성 치던 날 태어났다. 우나의 어머니는 산통이 심해지자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신에게 기도했지만 신 역시 남자였으므로 여자인 자신의 기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 순간, 그녀의 눈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고 성모 마리아는 그녀에게 아이가 지금 그녀의 몸에 끼어 있으며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속삭였다. 또한 아이를 당장 없애 버리지 않으면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에게 우나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차가운 방에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생사를 오가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술에 취한 우나의 아버지, 남자 형제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코를 골고 있었다. 그리고 우나는 그 속에서 살아 남아 무사히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우나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오두막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펠림'으로 우나가 어린 시절 내내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던 남자 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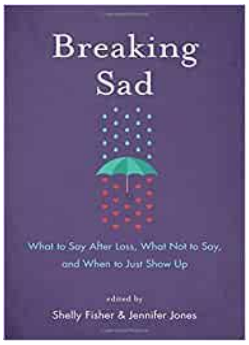
어린 시절 우나는 어머니의 예상대로 '키우기 힘든 아이'였다. 우나가 살고 있는 이 섬은 아일랜드 본토에서 꽤 떨어진 섬으로, 엄격한 가톨릭 종교 규칙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였다. 남자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거의 육지를 떠나 있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집안 살림을 꾸리며 오직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우나는 언제나 남자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 바다로 나아가길 원했다. 또한 계속해서 펠림을 만나고 싶어했다. 하지만 우나의 어머니는 외지인 출신인 펠림의 어머니 아이슬린을 이교도 마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펠림을 낳던 날 폭풍을 불러 일으켜 펠림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고, 우나가 펠림은 물론 아이슬린의 곁에 가는 것조차 결사 반대했다. 섬 사람들 중 아이슬린은 유일하게 남성들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자였고,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섬 남자들의 은밀한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였다. 게다가 우나의 어머니는 우나를 출산할 당시 들었던 성모 마리아의 경고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딸을 자신의 시야에 가둬 놓으려고 했고 우나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주입하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나는 펠림과 만나길 원했고 그에게 더욱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펠림과 아이슬린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기 위해 그들이 살던 오두막에 불을 질렀고 우나는 아이슬린을 돕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이슬린은 그녀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섬을 떠나라고 충고했다. 게다가 어느 날 우나는 자신의 둘째 오빠 엔다와 펠림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우나는 점점 더 자신을 옥죄는 섬의 가부장적 질서와 어머니의 잔인한 구속을 견딜 수 없었고, 얼마 후 펠림에게 강간당한 후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자 홀로 섬을 떠나 캐나다로 갔고 그곳에서 남편 팻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하지만 우나는 여전히 섬에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정신적 학대와 섬에서 경험했던 일들로 인한 트라우마로 괴로워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처럼 딸 조이스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딸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이스가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우나는 배신과 비밀의 피가 얼룩진 고향 이니스 섬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나는 과연 딸 조이스를 찾고 자신의 과거의 짐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지독한 모성과 여성들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녹아 있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몰리 에이트킨 (Molly Aitken)은 1991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아일랜드에서 자랐다. 그녀는 Galway University에서 문학과 고전을 전공했으며 Bath Spa의 Creative Writing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6 년 Writing Magazine의 동화 부분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편집자 및 대필 작가로 일하며 셰필드에 살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BREAKING SAD

가제 : 위로가 되는 위로

- 상실과 이별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

저자 : Shelly Fisher

출판사: She Writes Press

발행일: 2017년 11월 1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심리

*** 2017 USA Best Book Award 수상, 2017 Foreword Indies 은메달 수상, 2018 IPPY 은메달 수상**

*** 2018 Next Generation Indie Book 최종 후보작, 2018 International Book Awards 최종후보작**

*** 사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알려주는 조언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일도 늘어난다. 하지만 아무리 자주 접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익숙해질 수 없는 '사건'이다.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대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을 전공한 셸리 피셔는 아이를 잃은 부모를 만난 사례를 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가족의 고통만 더 심화시키는 잘못된 위로의 말들을 하는지 집어낸다. 그건 그 사람들의 본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대다수가 죽음과 관련된 위로의 방법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큰 실수였던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의 두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친구나 가까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을 잃은 작가들에게 슬픔과 상실을 위로하기 위한 산문과 시를 써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 책에 글을 싣게 된 글쓴이들은 슬픔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루거나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애도자의 입장이었던 시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썼다.

그 중 "당신이 아직 여기에 살아있었다면 내가 했을 10 가지 이야기들"을 쓴 자미 칸은 애도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마치 부러진 발목이나 손톱에 관한 안부를 묻듯 자신의 심정을 물을 때마다 '잃어버린 팔 다리가 아직도 붙어 있는 기분이다'라고 말했고 그 때마다 상대방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더욱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평화를 찾아서"라는 글을 쓴 세타레스 마키네자드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지인들과 친척들이 그녀가 계속해서 검은 옷을 입는 것을 얼마나 말리려고 했는지에 관한 애잔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애도 기간 중 글쓴이들이 들었던 최악의 이야기, 최고로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다.

실제로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들과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들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와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의미 있는 조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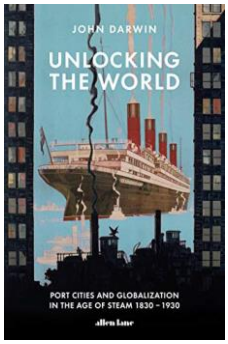
<목차>

1장. 얼마 되지 않은 이별
2장. 갑작스러운 이별
3장. 작별인사조차 하지 못한 이별
4장. 어린 나이에 떠난 사람과의 이별
5장. 연이은 이별
6장. 복잡한 사연이 얽힌 이별
7장. 알려지지 않은 이별
8장. 이별의 다양한 형태들
9장. 이별과 시간

<저자 소개>

셸리 피셔 (Shelly Fisher)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학 전공 시절 그녀는 24시간 위기 중재 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환원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교육 및 자선 단체의 이사회에서 일하면서 지역의 여러 소규모 사업을 이끌었다.

제니퍼 존스 (Jennifer Jones)는 대학에서 저널리즘 및 전문 글쓰기,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고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 창의적인 글쓰기, 에세이, 작곡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이다.



제목 : UNLOCKING THE WORLD

가제 : 항구 시대

– 19세기의 세계 질서를 재편한 '증기'와 항구 도시의 역사

저자 : John Darwin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역사

***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와 문화의 흐름을 바꾼 '증기'와 경제의 거점으로 등장한 대항만 도시의 역사에 관한 책**

1830년에서 1930년 사이의 세계는 '증기'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중국, 인도, 유럽 및 아메리카에 있는 세계 최대 경제 주체들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닷길과 철도를 통해 엮여 있었다. 덕분에 점점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 돈, 생각들이 국경을 넘어 퍼져가기 시작했고 상업적, 기술적, 군사적 교류 역시 더불어 활발해지면서 '증기력'을 가진 이들은 세계 질서를 재편성할 수 있는 권력까지 거머쥐었다. 이러한 변화의 대물결 속에서 유럽의 수십 개에 달하는 항구 도시들에는 엄청난 물적, 인적, 질적 투자가 집중되었다.

항구 도시는 '관문의 도시'였다. 전략에 따라 잉여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에 배치된 '고전적인' 도시와는 달리 항구 도시는 서로 다른 지역이 만나는 가장 자리에 위치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지역들은 배, 철도, 마차, 보트와 같은 운송 수단을 통해 서로 다른 경제적 생산물과 또한 문화, 문물을 주고 받았다. 또한 이 도시들은 운송이 이루어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다른 관련 서비스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항구 도시는 농촌 사회의 빈곤과 억압적인 사회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가 집중되며 경제적인 기회로 넘치는 장소였다. 농촌 사람들은 지주의 횡포, 계급, 흉작, 불안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항구 도시로 몰려 들었다. 그러나 항구 도시 역시 여타 다른 도시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집중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과 콜레라에 시달리곤 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적 안전망은 전쟁이나 운송 사고 때문에 언제나 안정성에 있어 취약한 상태였고 불안한 정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큰 부를 축적할 순 있었지만 그 기초는 언제나 위태로웠던 것이다. 또한 항구 도시의 역사는 현 세계화의 역사와 매우 닮아있지만 당시 그 누구도 항구 도시의 발전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계의 모습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고 다가올 세계 정치의 격변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항구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항구 도시가 건설되던 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항구 도시의 역사를 살피고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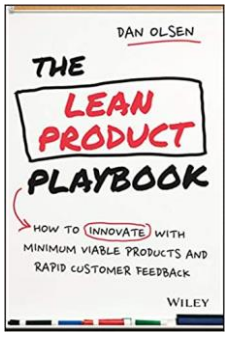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항만 도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책으로 뉴올리언즈에서 몬트리올, 봄베이, 싱가포르, 캘커타에서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역사적 이야기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현대 시대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 매력적인 세계사책이다.

<목차>

지도 목록
서문
소개: 열쇠와 자물쇠
1부: 세계적인 연결성 구축
1장. 구세계의 항구 도시
2장. 컬럼비아 전주곡
3장. 증기 장치의 세계화
4장. 변화하는 바다
2부: 증기의 지배
5장. 미국의 관문들
6장. 해양 라즈
7장. 난양부터 양지까지: 중국 해안의 항구 도시들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다윈 (John Darwin)은 2019년에 은퇴할 때까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제국사 및 세계사 강의를 진행했다. 저작으로는 『After Tamerlane』, 『Unfinished Empire』 및 『The Empire Project』가 있다.



제목 : LEAN PRODUCT PLAYBOOK
가제 : 제품 개발의 정석, '린 스타트 업' 다시 읽기
- 팔리는 제품 만들기의 A-Z
저자 : Dan Ols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6월 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경영

*** 5개국, 30,000부 이상 판매!**
*** 'Facebook', 'Box', 'Hightail', 'Epocrates' 및 'Medallia'의 컨설턴트로 일한 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 관한 매뉴얼**
*** "고객이 좋아하는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 KISSmetrics와 Crazy Egg의 공동 설립자, 히튼 사**
*** "저자의 제품 전문 지식은 우리 기업 Box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초기 단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Box의 CEO, 아론 레비**

상품 개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고객의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킬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이다. 게다가 그런 우리의 불안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부분의 신제품은 거의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불안을 해결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단계별 지침과 조언을 통해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에릭 리즈가 시작한 린 스타트 업(Lean Startup) 운동은 제품 시장에 맞는 아이디어와 이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운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품 개발에 관한 새롭고 가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운동의 가치관에 대해 열광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이 운동의 핵심적 사고를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 운동이 추구하는 개념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친숙하게 여기긴 했지만 팀 차원에서 정확히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린 스타트업 운동의 원칙에 관심이 있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려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린 운동'에 따른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방법들은 어떤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다음 항목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타겟 고객 결정하기
-소외된 고객 요구 파악하기

-성공적인 제품 전략 수립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MVP) 결정하기
-MVP 프로토 타입 디자인
-고객과 MVP 테스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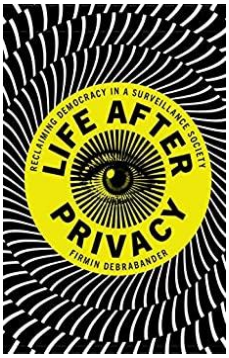
이 책은 제품 관리, UX 디자인, 코딩, 분석 및 마케팅에 걸쳐 폭넓은 경험이 있는 기업가이자 린 제품 전문가 댄 올슨이 쓴 책으로, 실무 컨설턴트로서 본인이 직접 많은 회사들의 제품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훌륭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경험과 조언을 담은 책이다. 그의 고객으로는 'Facebook', 'Box', 'Hightail', 'Epocrates' 및 'Medallia'가 있으며 이 책은 기업가, 경영진, 제품 관리자,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분석가 및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목차>

서문 : 제품 개발이 실패하는 이유와 린 운동이 성공하는 이유 / 핵심개념들
1부
1장. 린 제품 개발 과정에 따른 제품 시장에 맞는 제품 만들기
제품 시장에 맞는 제품이란 무엇일까?
제품 시장에 적합한 피라미드
속도 높이기: # 47에서 # 1로
린 제품 개발 과정
2장. 문제의 공간 VS 공간의 문제
스페이스 펜
시장 정의 문제
무엇을 어떻게
외부 제품 개발
고객의 말을 들어야만 하나요?
(이하 생략, 총 3부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올슨 (Dan Olsen)은 기업가, 컨설턴트 및 린 제품 전문가이다. 그는 CEO 및 제품 개발 담당 리더들과 협력하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왔다. 그의 고객으로는 Facebook, Box, Hightail, Medallia, Financial Engines 및 One Medical Group이 있으며 높은 판매율 및 수익을 기록했다. 또한 그는 소셜 네트워킹의 선구자 인 Friendster에서 제품 관리팀을 이끈 바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뉴스를 구성하는 스타트업 회사인 YourVersion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였다. 현재 그는 비즈니스 및 기술 행사에 참석해 자주 강연을 하고 있으며 실리콘 밸리에 살면서 'Lean Product Meetup'을 주최하고 있다.



제목 : LIFE AFTER PRIVACY

가제 :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안전하신가요?

- 디지털 시대의 고백 문화와 감시 경제 속, 무방비 상태의 '개인 정보'

저자 : Firmin DeBrabander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분량 : 180 페이지

장르 : 사회

*** 디지털 행동과 프라이버시의 위기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 정보 보호의 역사적, 철학적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

21 세기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국가의 역사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배운다. 일부 학자들은 만약 초기 미국 정착인들이 영국 왕실에 반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주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후 20세기 후반 확립된 시민권 논리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 강력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까운 이들과 보내는 가장 친밀한 시간 혹은 폭력적이거나 불쾌한 이미지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거의 본능적으로 사진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업로드 한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표준적인 행동 양식이 되었고 이에 더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혜택과 선택 범위가 넓은 디지털 경제 체제의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생활의 여러 부분을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들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삶의 주요 세부 사항들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은 절대 추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들을 사용한다. 이 책의 저자 퍼민 드브라밴더 교수는 이는 우리가 마땅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 정보를 수집하는 집단 중 다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구상 가장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진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적인 삶을 온라인에서 드러내고 사적인 세부 사항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다.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만연한 감시 현상을 무뎌진 채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망각하고 개인 정보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 유산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지불식 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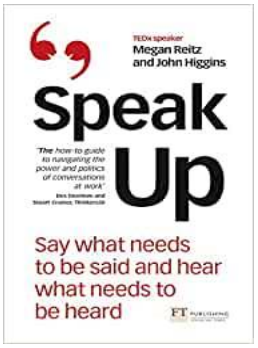
없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검은 기관들을 계속 지원해야만 하는 것일까? 개인 정보 보호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 저자는 개인 정보 보호는 민주주의의 가장 연약한 토대이며 역사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철학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관심사의 대상이라도 주장한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금 위기에 처한 디지털 공간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학, 정치, 정치, 미디어 연구, 법률 및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학제 간 폭넓은 분석을 제공하고 온라인 행동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와의 발전과 개인 정보 보호가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고백 문화
2장. 프라이버시 방어
3장. 빅 데이터를 위한 큰 계획
4장. 감시 경제
5장. 프라이버시 과거와 현재
6장. 경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자아
7장. 자율성과 정치적 자유
8장. 강력한 대중
결론

<저자 소개>

퍼민 드브라밴더 (Firmin DeBrabander)는 메릴랜드 공과 대학 철학 교수입이다. 그는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the Atlantic, LA Times, Salon, Aeon, Chicago Tribune 등 여러 간행물들에 논평을 기고했다. 저작으로는 미국 내 총기 권리 운동에 관한 철학적 정치적 비판서인 『Do Guns Make us Free?』 가 있다.



제목 : SPEAK UP
가제 : 분명하게 말하세요
– 'T-R-U-T-H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 직장 내 대화의 기술
저자 : Megan Reitz, John Higgins
출판사: FT Publishing International
발행일: 2019년 7월 10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처세

*** 'Business Thinkers 50' 선정 및 유명한 TED 강연자가 말하는 직장 생활에서의 대화의 기술에 관한 책**

*** "두 저자가 만든 엄격하고 실용적인 'TRUTH 프레임 워크'는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준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Fearless Organization』의 저자, 에이미 에드먼슨**

발언 행위가 가진 힘은 나와 타인이 가진 힘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대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승진이나 다른 부수적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혁신과 재빠른 격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발언 행위'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대화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며 공감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특수 환경에는 힘과 지위, 신뢰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결국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행위를 배제 당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은 쉽게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한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고 침묵하고 있거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습관들은 도통 잘 변하지 않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가 대화 중 내리는 선택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아이디어나 지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묻혀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말한 것에 따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번영과 동기 부여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며 불만과 분개의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직장 생활의 말의 질서 속에서 작용하는 정치와 힘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신감 있게 내 목소리를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지만 아무리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말은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로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거나 또는 그들을 침묵하고 듣게 만드는 방법 또한 가르쳐 준다. 두 저자가 직접 고안한 프레임 워크 'TRUTH: Trust(신뢰), Risk(위험), Understanding(이해), Titles(직책), How-to(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우리가 왜 듣고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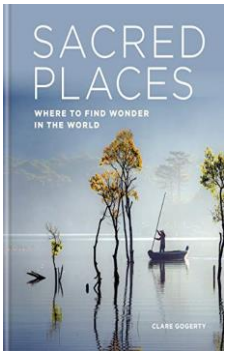
서문
1장. 권력의 세계에서 진실을 말하기
2장. 신뢰: 당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3장. 위험: 경험과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
4장. 이해: 비공식적인 정치 규칙과 힘 찾아내기
5장. 직책: 그들이 권력을 주고 받는 방법
6장. 사용 방법: 기술을 적용하여 말하고 듣기
7장. 미래의 진실: 디지털의 세계가 낳은 심오한 결과
8장. 진실 (TRUTH)로 가는 길

<저자 소개>

메간 라이츠 (Megan Reitz)는 Leadership and Dialogue at Ashridge Executive Education, Hul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의 교수이며 리더십, 변화, 대화 및 마음 챙김의 교차점 등에 대해 강의하며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사상가 'Thinkers50'에 선정되었으며 HR Magazine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선정되었다. 저작으로는 『Dialogue in Organisations and Mind Time』이 있다.

존 히긴스 (John Higgins)는 개인성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업무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Right Conver-sation의 리서치 디렉터로 조직 투명성의 척도인 'Speak-up index'와 Gameshift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마고 있다. 그는 주로 조직 변화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며 정신 분석 과정에 대한 오랜 연구 경험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제목 : SACRED PLACES
가제 : 새로운 여행법 – 한 차원 더 깊이 여행하기
저자 : Clare Gogerty
출판사: Aster
발행일: 2020년 9월 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여행, 자기계발



*** 여행길이 막힌 요즘 괘적한 거실에 앉아 아름다운 사진들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가진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살펴보는 내면의 여행에 대한 안내서**

일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받을 때가 있다. 요가 수업은 몸과 더불어 마음이 움직이는 감각을 일깨우고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숲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힘을 깨닫게 되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될 때도 있다. 높은 곳에서 달을 보면 우리들 모두 자연의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깨달음과 느낌들은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더 나아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를 자극한다. 그리고 바로 그 부름 속에서 우리의 여행은 시작된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듯 여행이란 우리의 마음과 지경을 넓혀 준다고 하지만 사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 아름다운 여행 책의 저자 클레어 고거티는 이제 새로운 여행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변혁적인 여행'이다. 저자는 단순히 비행기나 차,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여행이 아닌 성찰과 자기계발의 과정을 통해 자연, 문화, 영적 세계등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내면의 여정의 힘을 강조한다. 즉, 저자가 말하는 여행이란 단순히 한 번의 환경적 변화로 경험하는 여행이 아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여정을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변혁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을 '웰빙 여행자'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웰빙'이란 본질적으로 '여행'과 '탐구'이며 변혁적인 여행은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여행을 통해 내 자신과 자연,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인생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감각을 되찾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과 미래를 향한 여행에 대한 영감으로 가득 찬 여행서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계몽적인 경험을 선사해 줄 장소로 바로 앉은 자리에서 떠나게 해줄 탐험서이다. 저자는 각 장에서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 예를 들어 남미에서만 할 수 있는 약초 의식, 아이슬란드의 희귀한 온천에서의 야외 수영 등에 대해 소개하며 어떻게 하면 평생에 걸쳐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심오하고도 변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한 장소가 가진 역사와 중요한 이야기들, 신화, 전설 및 행사, 각 장소 별 방문하기 좋은

시기 등에 대해 소개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여행서이다.

<목차>

무엇이 한 장소를 신성한 곳으로 만드는가?

변혁적인 여행을 위한 안내

변혁적인 여정을 위한 단계

1장. 아프리카, 중동

이집트,하토르 신전

아잡트, 기자고원

이집트,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

나일강

모로코, 오주드 폭포

예루살렘

2장. 아시아

3장. 오세아니아

4장. 유럽

5장. 북미

6장. 중남미

(세부 목차 생략, 총 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클레어 고거티 (Clare Gogerty)는 고대 및 신성한 장소, 길 및 영국 여행에 관심이 있는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그녀는 출판, 저널리즘 업계에 종사하면서부터 여행에 열정적으로 빠지게 되었다. 인쇄 저널리즘 분야의 경력으로 그녀는 열정에 빠지면서 많은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간행물 중 Coast magazine (6년 동안 편집자로 근무하며 많은 상을 수상한), Guardian 및 Conde Nast Traveller에 여행과 관련된 글을 기고했다. 저작으로는 여행 가이드북인 『National Trust's Book of the Coast』, 『Hidden Villages of Britain』이 있다.